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씀

봄이 왔습니다. 아지랑이 일렁이듯 만물이 생명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산과 들에 기운을 불어넣고 물오른 풀과 나무들이 색색의 향연을 펼칠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엄세상입니다. 이 생명의 시절, 화엄의 시절에 중앙종회가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종단과 구성원을 위해 헌신하시는 중앙종회 의장스님과 의원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종회는 종단의 지난 살림을 결산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겨우내 벌였던 논의의 결과를 집약하는 장입니다. 종도들의 소중한 의견을 법과 제도라는 꽃으로 피워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종회가 한국 불교의 앞길을 열어 나가는 소중한 탁마의 장이자, 지혜와 경륜의 축제마당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집행부 역시 불교 중흥을 위한 각종 노력과 고민의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불기2556년 중앙종무기관의 살림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에 따른 결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몇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한 종법 제정과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승적(수계)관련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종단 주요 시기마다 문제되던 승적 수계사항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화합종단을 이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승가의 위의를 확립해 종도들이 더욱 승보를 공양하고 호법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은 종단의 수행 분위기를 더욱 진작하기 위함이며, 함께 제출한 「승가고시법」과 「법계법」 개정안에도 소중한 의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숙고가 반영된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중총회의 중요한 당사자인 본사주지스님의 뜻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인법」 제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인 관련자들이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수행하고 전법하는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권한과 의무는 마주보며 가야하는 것이기에 다른 종도와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사찰과 승려의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 미등록 법인을 양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헌 종법체계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두자는 것이 이 법 제정 취지입니다. 중앙종회와 집행부의 공동책임이 필요합니다. 깊이 헤아려 현명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혜안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집행부와 중앙종회, 그리고 교구본사주지스님 등이 함께한 종단 주요 소임자 워크숍에서 ‘교구행정책임제’를 제안하고 긍정의 토론을 이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찰 운영의 합리화 방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수행과 전법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종단 운영에 대한 원론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더 많은 토론의 장이 벌어져야 합니다.

중앙종무기관의 강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부단한 쇄신으로 종단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서운 겨울바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소임자들의 불교 중흥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종단을 위하는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깊은 논의와 지혜로운 결정들이 한국불교 중흥의 봄소식으로 우리 종단 곳곳에 두루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3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